

U.S. Daily Briefing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6.30.(금) 제23-073호

◆ [Focus] 미, 에너지 분야 고용 증가세 두드러져

◆ [What's News]

- (반도체)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예고 고시
- (철강) 미-EU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협정(GASSA) 협상 난항
- (미국동향)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수출통제) 미국, 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규제 검토
- (미중관계) 美 언론, 중국 신 외교법과 개정 방첩법 관련 우려
- (IPEF) 청정·공정경제 필라를 논의한 IPEF 장관급 화상회의

◆ [Top Headlines]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에너지·고용) 미, 에너지 분야 고용 증가세 두드러져

“2023년 미국 에너지 및 고용보고서 주요 내용”

1. 개요

□ 美 에너지부, 2023년 미국 에너지 및 고용 연례보고서 발간(6.28)

* 2023 U.S. Energy and Employment Report (USEER)

○ 2021~2022년 대상, 에너지 및 에너지 기술 산업 고용 동향 발표

- 미국의 에너지 부문 종사자는 2022년 기준 약 30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년 대비 3.8% 증가율을 기록, 총 일자리는 810만개 수준
- 특히, 미국 내 총 114,000개의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3.9% 증가율을 기록, 전체 에너지 일자리의 40% 이상 차지
-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홀름(Jennifer Granholm) 장관은 성명에서 “청정 에너지 분야의 가시적인 일자리 성장세는 대통령의 미국 투자 의제 (Invest in America Agenda)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반영한다” 자평

2. 주요 내용

□ 미국 투자 의제(Invest in America Agenda) 추진, 탈탄소 경제 달성 노력

-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의제에 기반을 둔 투자 및 고용 창출을 반영, 미국 내 모든 주(every state)에서 청정에너지 일자리 증가 발표
 - 주요 에너지 및 에너지 기술 산업의 연방 및 주 고용, 인력, 산업, 직종, 인구 통계 및 고용 현황 등 주요 통계 자료를 포함
 - 투자 의제 추진과 더불어 2035 청정 전력 100%와 2050 넷제로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에너지부 보고서 여섯 가지 주요 내용(6 Key Findings)>

(1) 에너지 부문의 전체 일자리 증가

- 에너지 부문 일자리는 '21년 총 780만개에서 '22년 810만개로 증가
- '20년 펜데믹 시점 대비 일자리의 71% 회복

(2) 에너지 산업은 전체 기술 분야에 걸쳐 모두 성장세

- 수소 전지(25%), 해상 풍력(20%), 전력그리드(12%), 플러그인하이브리드(10%)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세로 일자리 창출 기여
- 자체 설문문에 따르면, 기술 분야 고용주는 2023년까지 성장에 대해 낙관 전망

(3) 특히,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증가

- 태양광 및 풍력 등 신규 청정 일자리는 전체 약 87% 차지, 22,279개 일자리 증가
- 관련 분야는 모든 주에서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는 3.9% 증가, 미국 전체 일자리는 3.1%로 이를 초과하는 수치

(4) 전기 자동차 분야는 에너지 분야 중 가장 빠른 성장세

- 에너지 기술 중 가장 빠른 성장세로 28,366개의 일자리가 증가(+27%)
- 전기차 등 청정차량 관련 일자리는 자동차 신규 일자리의 59% 차지

(5) 에너지 산업 내 성별, 인종 등 종사자 분포 분석

-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는 150,000명(+7.8%), '22년 추가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에너지 인력의 1/4은 비백인(non-white) 근로자로 전체 인력 중 비백인 비율인 23% 보다 약간 높은 수준

(6) 에너지 분야 종사자는 노조 대표 또는 단체 교섭 보호 비율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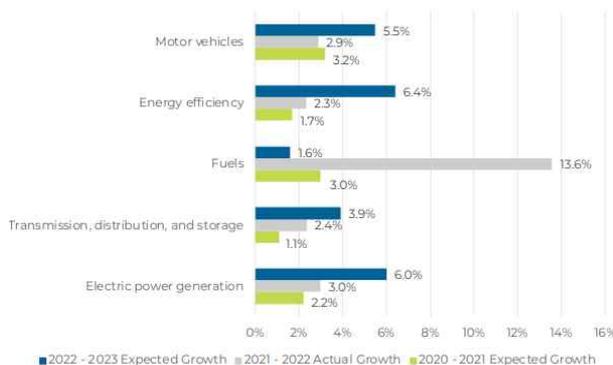
- 노조로 대표되거나 프로젝트 노동 또는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보호 받는 근로자 비율(11%)은 민간 부문 평균(7%)의 1.5배 이상

[자료: 美 에너지부 보도자료]

3. 현지 반응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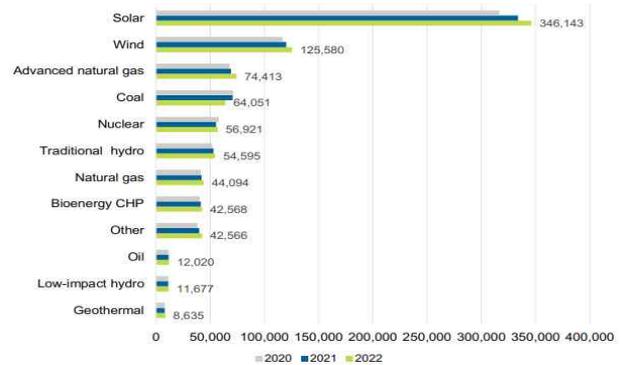
-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성장세 확연, 2023년에는 IRA 효과로 심화 전망
 - 미국 내 일자리가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 및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상당 부분 회복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 국가기후보좌관 알리 자이디(Ali Zaidi)는 이번 발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비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환영
 - 현지 언론 폴리티코는 미국 내 모든 주 에너지 부문 일자리 증가를 보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 효과를 포함하면 에너지 및 기술 분야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 예측
 - * 이번 보고서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의 고용 동향만을 포함
 - 또한, 배터리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및 연료 전지 차량의 일자리를 포함한 청정자동차 일자리의 빠른 성장세에 주목했으며 이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성장세 대비 17배 속도라고 설명

<기술별 고용 변화 예상 및 실제 비교>



* 대부분 실제 고용은 기존 예상치보다 더 많이 증가
[자료: 美 에너지부]

<에너지 기술, 산업 및 직종별 고용 현황>



* 태양광 (12,256명) 증가, 석탄(-6,780명) 감소 등
[자료: 美 에너지부]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 美 에너지부(6.28), 폴리티코(6.28)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무역관 보유자료

□ (반도체)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예고 고시

- (개요) 네덜란드, ASML社 노광장비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 규정 발표
 - '19년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에 이어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로 수출통제 대상 범위 확대(6.30.자 관보 게재)
- (상세) 9월 1일부터 DUV 3종 제품 수출 시 당국의 허가 취득 必
 - 통제 대상은 고사양 DUV 제품으로 모델명 △TWINSCAN NXT:2000i △NXT:2050i △NXT:2100i 이상 3개 제품
- (전망) 미국 정부, 저사양 DUV 제품 대중 수출까지 봉쇄 계획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7월 말경 공개될 신규 규정에서 SMIC 등 6개 중국 기업으로 수출되는 저사양 DUV 통제 예상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Bloomberg(6.30), 네덜란드 왕국관보(6.30), 로이터통신(6.29)

□ (철강) 미-EU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협정(GASSA) 협상 난항

- (개요) 파이낸셜타임스, EU가 미국의 GASSA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
 - 관계자에 따르면, EU가 WTO 규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미국 측 제안(철강 생산 시 탄소배출에 비례한 관세 부과)에 수용 불가 방침 전달
- (상세) 올해 10월까지 협상 불발 시 對EU 철강 232조 관세 재가동
 - EU 측은 탄소 국경조정 제도(CBAM) 방식을 역제안. 하지만,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부재한 미국은 CBAM 도입에 난색
 -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에게 EU와 협상 여지 부족*
 -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232조 관세 양보 등 사안이 현 정부에 정치적 불리
- (기타) 미-EU 핵심 광물 협정도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체 중
 - EU는 미국 법으로 정한 핵심 광물 50개 품목의 IRA 특혜 요구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파이낸셜타임즈(6.28)

□ [미국동행]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개요) 백악관, 바이든 정부 경제 치적 홍보를 위한 성명 발표(6.28)
 - 백악관이 발표한 바이든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는 세 가지 중점 (△공공 투자, △노동자 역량 강화, △비용 절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쟁 촉진)을 포함해 미국 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우선시
 -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회복 등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다수
- (상세) ‘바이드노믹스’, 중산층 재건을 위한 ‘아메리칸드림’ 복원 목표
 - 바이든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행한 연설에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과제로 미국 내 투자와 중산층 성장을 돕는 교육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 독과점 규제를 제시
 - 또한, 바이든은 과거 실패한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바이드노믹스’를 통해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내년 재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
 - 이와 덧붙여,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는 중산층 기반을 축소하고 근본적인 불평등을 증가시켰다며 언급
- (전망) 바이든의 경제 정책, 유권자 대부분에서 부정적인 견해 존재
 - 이날 발표된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약 1/3만이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지지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자료원	백악관(6.28, 6.28). AP-NORC(6.28)

□ [수출통제] 미국, 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규제 검토

- (개요) 미국의 대중 AI 반도체 규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국 포함 '우려 국가'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허가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을 통해 전언
 - 추가 수출 통제 대상 업체는 엔비디아(NVIDIA)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표 시기는 미정
- (상세) 대중 AI 반도체 수출 제한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금지 검토
 -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대중 수출 통제 규제로 AI에 많이 쓰는 A100 반도체가 수출 금지되자 저사양 A800을 개발해 중국에 판매
 - 그러나, 신규 규제는 A800 수출까지 통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AI 업체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금지도 검토
- (전망) 엘런 재무장관 중국 방문 이후 추가 수출통제 발표 전망
 - 대중 관계 악화를 우려, 올해 7월 초로 예정된 재닛 엘런 재무장관의 방중 이후로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
 - 또한, 미국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이 중국에서 저성능 반도체 생산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자료원	WSJ(6.27)

□ (미중관계) 美 언론, 중국 신 외교법과 개정 방첩법 관련 우려

- (개요) 중국 신 외교법 제정과 방첩법 개정으로 인한 미국 기업 타격 우려 보도
 -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새 외교법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대상 서방 경제 제재와 수출규제에 대응할 권한을 강화하여 향후 중국의 더 강력한 조치와 통제가 전망, 해외투자 유치 감소 우려
 - 국가 안보 관련 데이터 유출, 간첩행위 근절을 위해 개정된 방첩법은 중국 내 美 기업의 정상 비즈니스 활동을 잠재적 범죄 행위로 취급할 가능성 제공
- (상세) 공산당의 외교 장악력 강화와 엄격한 국가 안보 관련 외국 기업 감시 전망
 - 신규 외교법은 시진핑의 두 외교 정책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도 함께 포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
 - 파이낸셜타임즈는 이 법안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려, 블룸버그는 그간 베이징의 미국 제재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 법 또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 전망
 - 미국의 방첩 당국자들은 중국의 방첩법 개정에 대해 이 법률이 간첩 행위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게 기업 정보에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고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미국 경영진들에게 경고
 - 방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의 정의를 “국가 기밀 및 정보”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서, 데이터 등”으로 확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 허용, 출입국 제한 부과 항목 포함
- (참고) 중국은 여전히 해외 사업에 개방적임을 강조
 - 중국, 이 법에 “높은 수준의 개방”과 외국인 투자 보호, 외부 경제 협력을 장려한다며 외국 기업·단체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박소현

▪ 자료원 | 블룸버그(6.29), 파이낸셜타임즈(6.29), 월스트리트저널(6.30)

□ (IPEF) 청정·공정 경제 필라를 논의한 IPEF 장관급 화상회의

- (개요) 미 상무부, IPEF 장관급 화상회의 개최 결과 발표(6.29)
 - 14개국 장관이 모두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필라를 타결한 기세로 청정경제(필라3)와 공정경제(필라4)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
 - 한 편, 상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3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대상에 필라3 참가국이 포함됨을 공식화
- (상세) 필라별 요구 수준 달성 및 실질적 혜택 제공 방안 등 논의
 - 필라3 관련해서는 민-관 협력 투자 포럼 구성, 회원국별 추진 프로젝트 공유, 기후기금 활용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등이 제시
 - 또한 필라3 회원국 대상의 DFC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기금과 I Squared Capital로부터의 금융지원*을 발표
 - * DFC 지원금액의 3배를 매칭펀드로 지원, 총 12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 필라4 관련, 미국은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요성 강조
 - 회원국들은 청정경제 달성을 위한 투자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저리 금융지원의 중요성 강조
- (비고) 다음 협상 라운드(4차)는 7월 부산에서 개최(7.9~15)
 - 미국,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라3·4 타결을 목표하는 것으로 보여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 자료원 | 상무부(6.29), 인도네시아 정부(6.30), 인사이드트레이드(6.30) 등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Goldman Is Looking for a Way Out of Its Partnership With Apple (골드만삭스, 애플과의 파트너십 “출구 모색”)
	제보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아멕스와 애플 카드 사업부 등 매각을 논의. 골드만삭스는 소매금융 사업부 축소를 추진하고 있었음
The Washington Post	Supreme Court rejects Biden’s student loan forgiveness plan (연방대법원,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제동)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판결.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을 예고
The New York Times	Supreme Court Rejects Student Loan Forgiveness Plan (연방대법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기각)
	연방대법원, 6-3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4,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기각, 대통령 권한에 제동. 바이든,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비판

* 미국 동부시간 6월 30일 17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20	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통계로 보는 변화	2023.06월
US23-19	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스 의견서 주요내용	2023.06월
US23-18	RE100,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	2023.06월
US23-17	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6월
US23-16	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5월
US23-15	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및 시사점	2023.05월
US23-14	미국 반도체 R&D 지원 정책 방향	2023.04월
US23-13	미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4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 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 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4 (2023.6.30)		
코인시-13 (2023.6.26)		